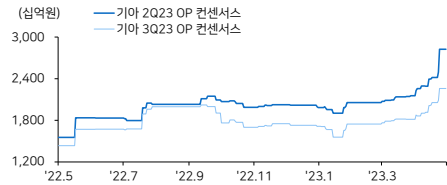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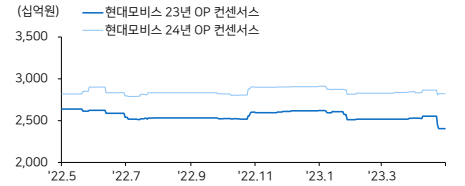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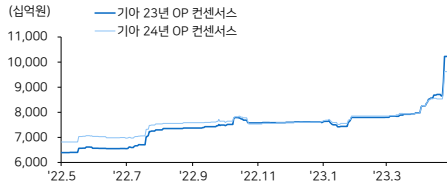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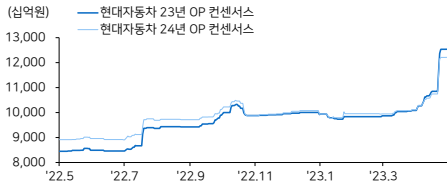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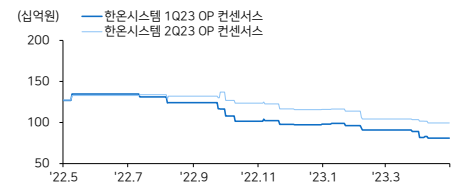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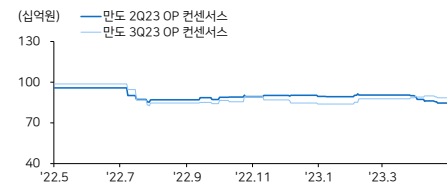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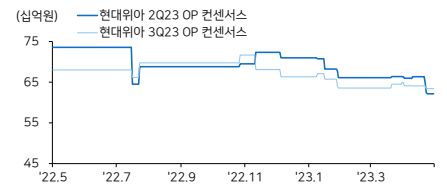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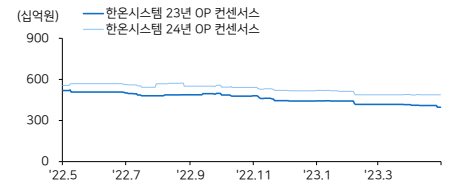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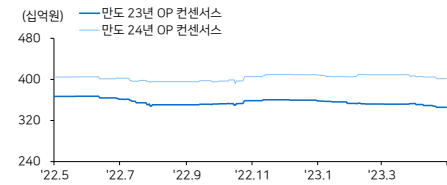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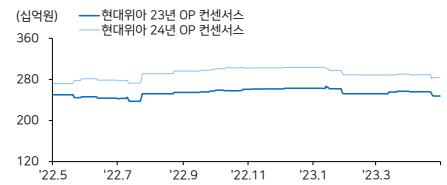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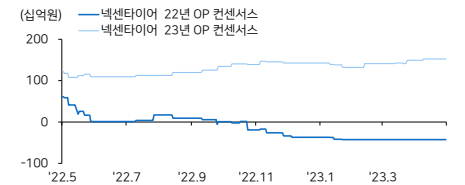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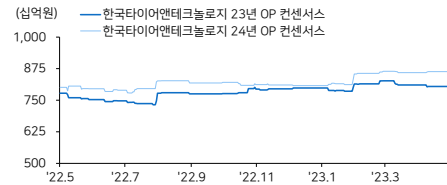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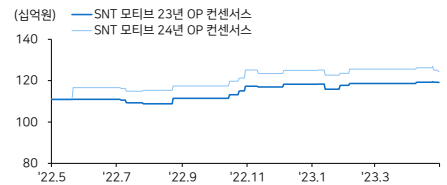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현대차·LG엔솔, 6조 투입 북미 배터리공장 (매일경제)

현대자동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6일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확정. 현대차그룹에선 SK온과의 합작 공장에 이은 북미 내 두 번째 배터리 공급처 확보인 셈.
<https://bit.ly/45qY5eI>

전기차 1위가 언다? *유럽 5개국, 중비야디 공장 유치전 (머니투데이)

비야디 투자 유치에 스페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가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디는 "현재 유럽에 승용차 공장 투자를 위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적당한 위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bit.ly/3MTb9I2>

Waymo and Uber sign multi-year partnership to provide driverless rides and deliveries (electrek)

Waymo와 Uber는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고객에게 무인자랑서비스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최초의 서비스 릴리즈는 Waymo 무인택시가 운행 중인 피닉스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예정.
<https://bit.ly/3pXCidm>

Tesla offers China-made electric vehicles for sale in Canada (Reuters)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상해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및 모델 Y를 판매할 계획. 캐나다 BC주에서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Model Y RWD, Model 3 LR AWD 모델이 가장 상하이에서 제조되었음이 웹사이트에 나타난다.
<https://reut.rs/43i3tYB>

Allkem, set for merger, talks up Argentina's 'enormous' lithium riches (Mining.com)

Livent와 합병을 앞둔 호주 리튬 채굴업체 Allkem은 아르헨티나 리튬 산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언급. 향후 리튬 프로젝트가 2030년 이내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가 가능하며 아르헨티나의 리튬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음.
<https://bit.ly/3pYK4DM>

가성비' 하이브리드카 전성시대..현대차·기아, 40% 증산 나섰다 (따이낸셜뉴스)

현대차·기아가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량을 작년 보다 4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은 대당 판매이익이 높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 집중해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포석.
<https://bit.ly/3WwEy7J>

전기차 수요 폭발점? ~'kWh당 가격 120달러 이하여야' (글로벌이코노믹)

배터리 업계는 현재 기준으로 이상적인 배터리 가격을 kWh(킬로와트시)당 120달러 이하로 전망. 해당 가격 이하의 중저가 배터리가 보급되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https://bit.ly/3ixMSOP>

Ford offers investors big bets but finds few takers (Reuters)

포드의 공격적인 전기차 계획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 포드는 전기차 전략 발표와 함께 'SW와 보험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향후 10년간 현금흐름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의존할 것'으로 언급.
<https://reut.rs/43kbD95>

Tesla expands massive virtual power plant to 3,000 more homes in Australia (electrek)

테슬라는 호주 남부 대규모 가상발전소 고객을 기존 4,000가구에서 3,000가구를 추가로 확장한다고 발표. 특히 저소득 가정의 전력요금 지원을 목표로 함. 가상발전소 구축 역시 속도를 내 7,000가구에서 곧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30wTFAQ>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